

‘천덕꾸러기’ 은행나무, 장성 황룡강 ‘보물’ 됐다

동화면 주민 가로수 악취 민원 지난해 황룡강 황미르랜드 이식 ‘은행나무 수국길’ 명물 재탄생

장성 황룡강 상류지역인 황미르랜드에 조성된 ‘은행나무 수국길’이 숨겨진 명소로 알려지며 많은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은행나무 수국길은 황룡강 기슭에 위치한 작은 테마 정원이다. 황미르교를 건너 우측으로 향하면 만날 수 있다. 명칭 그대로, 은행나무와 수국이 조화를 이룬 곳으로 이색적인 풍광을 지녔다.

이 곳의 은행나무들은 어느 나무들과 달리 독특한 사연을 지니고 있다. 나무들은 80년대 장성군 동화면 면 소재지에 심어져 있던 가로수다. 식재 초기에는 병충해에 강하고 가을마다 셋노랑게 거리를 장식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나무가 자라나며, 열매들로 인한 악취가 마을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했다.

또 뿌리가 보도블록을 밀어내고 인근 가옥 및 주택 담배락을 파손시키는 등 재산 피해도 유발했

다. 참다못한 동화면 주민들은 나무를 제거해줄 것을 장성군에 요청했다.

군은 전담반을 구성해 자체 회의와 면밀한 현장 조사를 거쳤다. 그 결과, 굴취 작업 후 황룡강 황미르랜드 기슭에 이식하기로 했다.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면서 황룡강에 새로운 볼거리도 만들 수 있는 묘안이었다.

지난해 여름, 장성군은 총 101주의 은행나무 중 이식이 가능한 수목 69주를 황미르랜드 인근에 최종적으로 식재했다.

우여곡절도 겪었다.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장성 전역에 큰 장맛비가 내리는 바람에 은행나무 한 그루가 유실되고 말았다. 다행히도 비가 그친 뒤 발견해 다시 심을 수 있었다. 한동안 생명력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올봄부터 새 이파리가 돌아나기 시작해 지역민들 사이에서 ‘희망의 상징’으로 알려지고 있다.

은행나무 주위를 아름답게 감싸고 있는 수국도 시선을 끈다. 초여름까지는 다채로운 빛깔의 원예 수국(꽃수국)이 활짝 피었다가, 최근에는 우윳빛 목수국이 절정이다. 은행나무 수국길과 함께 서삼 장미터널 인근에서도 수국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천덕꾸러기’였던 동화면 은행나무 가로수가 황룡강 상류 황미르랜드에 옮겨 심어져 올 가을 이색적인 풍경을 자아낼 것으로 기대된다. <장성군 제공>

조경을 감상할 수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동화면 주민들을 괴롭히던 천덕꾸러기 은행나무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숨겨진 보물로 다시 태어났다”면서 “장성 황룡강의 가을 풍경이 더욱 아름다운 노란빛으로 물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해, 모든 군민이 행복한 옐로우시티 장성 건설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드론을 활용해 발견한 풍란 자생지.

멸종위기야생생물 풍란 조도서 신규 자생지 발견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는 다도해해상 도서지역에서 무인비행장치(이하 드론)를 활용한 ‘멸종위기 및 자생식물 조사’로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 풍란(학명 : Neofinetia falcata (Thunb. ex Murray) Hu)의 신규 자생지를 발견했다.

서부사무소는 지난 5월 조도지구 특별보호구역 모니터링 중 접근하기 힘든 도서벽지에 드론을 활용해 풍란 25개체의 신규 자생지를 발견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번 풍란 신규 자생지는 지난 2011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소안·청산지구 일원에서 발견된 이후 10년 만이다.

환경부는 생물종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풍란을 한국 적색목록 위급(CR, critically endangered) 범주로 평가했고, 1989년부터 특정야생동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1998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005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I급을 거쳐 2012년부터는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송도진 해양자원과장은 “이번 풍란 신규 자생지 발견은 공원 내 생물종다양성이 보전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앞으로도 드론과 같은 첨단기술들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풍란, 지네발란 등)의 신규 자생지 확인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농어촌공사 목표무안신안지사 농지은행사업 242억원 확보

한국농어촌공사 목표무안신안지사(지사장 한화진)가 최근 2021년 농지은행사업 추진을 위해 242억원을 확보했다.

농지은행사업은 청년창업농, 2030농가, 전업농 등에게 농지지원(연리 1%, 20년~30년 상환), 부채과다 농가의 경영회생지원(연3%, 최대10년), 고령농가농가에 대한 농지연금 지급과 농지를 매입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목표무안신안지사는 2021년 상반기까지 농지은행사업비 121억원(50%)을 집행하여 청년농 등 408명의 농업인에게 농지 매입·임차를 지원하고, 58개 고령농가의 농지를 매입, 연금가입을 추진해 안정적 은퇴를 유도했다.

특히 코로나 19, 이상기후 등에 따른 부채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농가에 대한 지원을 위해 경영회생 사업에 집중했다. 그 결과 지역 경영회생 예정예산의 78%(46억원)를 상반기 중 집행해 8명의 경영 위기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했다.

또 농지시장의 안정화와 청년농업인 등에게 안정적 농지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경우 전문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통한 농지가격으로 영농은퇴를 고민하는 농업인의 우량농지를 매입하여 안정적 영농은퇴를 지원하고 있다.

한화진 농어촌공사 목표무안신안 지사장은 “영농기 바쁜 농민의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하반기 적극적인 사업홍보와 노력으로 21년 예정예산의 120%를 집행해 지역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서해해경청, 서남해 적조 예찰 항공기 띄운다

완도 청산도·고흥 득량도 등 26일~다음달 20일까지 순찰

서해해경청 해양경찰청이 적조 발생에 대비해 항공 순찰에 나섰다.

적조는 바다에 분포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강한 햇빛과 높은 수온의 영향을 받아 대량 번식할 때 나타난다. 특히 7~8월에는 높은 기온과 강한

대마난류에 따른 대규모 적조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적조가 생길 경우 해수의 용존산소량이 부족해져 어패류가 폐사할 가능성이 커진다.

서해해경청 무안고정익항공대는 26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적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순찰에 나선 계획이다. 순찰지역은 완도 청산도와 고흥 득량도·사산도·나로도, 경남 남해군 남해도·창선도와 거제시 거제도 등이다.

무안항공대는 항공기 고유의 기동성과 우수한

탐지장비를 활용해 광범위한 예찰 활동을 벌인다. 적조 위치와 크기, 사진 등 항공 채증자료를 수집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시간 분포현황을 작성해 해양수산부와 국립과학수사원, 지자체 등과 공유한다.

박제수 서해해경청 항공단장은 “여름철 서남해안 일대에 대규모 적조가 발생할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항공 순찰을 하기로 계획했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구례군, ‘산수려밥상’ 대표음식점 4곳 지정

구례군은 최근 지역 음식점 4개소에 ‘구례군 산수려밥상’ 대표 음식점 지정증을 수여했다.

(사진)

구례군은 지난 2019년부터 대표 음식 개발 영역을 실시해 ‘삼대삼미의 고장, 구례’를 대표하는 산수려밥상 메뉴를 개발했다.

산, 강, 들을 테마로 지역 특산물인 자연산 버섯, 은어·쏘가리, 우리 밀을 활용한 밥상을 개발했으며, 지정 신청업소 현지 평가를 거쳐 대표 음식점 4개 소를 최종 선정했다.

대표 음식의 주메뉴 중 자연산버섯 샤브전골은 ‘산아래첫집’과 ‘참새미골체험식당’, 은어·쏘가리 찜에는 ‘전원가든’, 우리밀다슬기수제비에는 ‘구례밀밭’이 선정됐다.

해당 음식점에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밑반찬 기술 전수와 메뉴얼화 된 소스를 개발해 일정한 맛



을 유지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품평회를 실시했다. 대표 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지정 음식점에 대표 메뉴 전광판이 게시되고 각종 위생용품 지원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우리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로 차별화 된 대표 음식점을 육성하고 앞으로 도 트렌드에 어울리는 음식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곡성군, 코로나 특별방역 ‘월 스트라이크 아웃’ 시행

곡성군은 오는 31일까지 코로나19 특별방역 구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흥시설과 노래방 종사자, 외국인 고용 사업장 내의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주 1회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시행한다.

곡성군은 업체와 농장 등을 방문해 코로나19 검사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 운영시간도 저녁 8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관광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여름 휴가철 외지인 유입이 예상되는 곳을 중심으로 특별 방역 점검에도 나섰다.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은 현장에서 지도하며, 핵심 사항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월스트라이크아웃제)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의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